곡성 장미축제 '한복'이 피었습니다

군, 21일~6월 26일 축제장 내 한복문화 거리 조성…전시회·무료 대여·전통놀이 체험 등

곡성군은 올해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다양한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곡성군 제공〉

"다양한 한복문화 프로그램, 장미축제에서 만나보세요."

곡성군은 올해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5월21일~6월6일)에서 '곡성, 한복을 입다'를 주제로 다양한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입구 저잣거리 일대를 한복 문화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이번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복 문화 거리에서는 오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복전시회, 한복 무료 대여, 한복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한복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한복 전시회에서는 한복의 우수성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시 주제는 '한복 시대를 느끼다'이며 시대별 저고리, 속곳, 철릭 원피스 등 전통 한복에서부터 신한복까지의 변천사를 경험할 수 있다. 광주·전남 대표 한복 명장으로 알려진 광주대 안명숙 교수가 참여한 만큼 품격 높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복 무료 대여소에는 100여 벌의 다양한 한복이 마련된다.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 또한 장미 축제 기간 중 한복을 입으면 섬진강기차마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한복 전통놀이 체험관에서는 투호, 활쏘기, 제기차기, 문화재 VR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28일과 29일 기차마을 내에서는 한복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중앙무대에서는 정인순 명장과 김선아 명장이 제작하고 안명숙 교수가 기획한 한복 패션소 'Golden Rose 심청, 무대에 서다'가 진행될 예정이다. 웨딩 한복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복 런웨이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가정역 곡성아트빌리지에서는 한복 미니어처 인형을 전시한다. 한복을 소재로 아기자기하게 창조해낸 동화같은 세상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한복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체육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군 단위로는 최초로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년 다양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세계장미축제에서 아름다운 장미도 마음껏 구경하시고, 장미만큼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도 실컷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여성행복도시 꿈꾼다

69억 투입 가족센터 건립·능력개발·취업·정책참여 확대

구례군이 여성 능력개발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족센터는 가족, 돌봄, 다문화,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맞벌이 가정 등 직장생활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소통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여성 능력개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여성문화회관에서 9종의 건강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40여 명의 여성 교육생이 참여해 교육·문화를 경험하는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요양보호자 자격증반은 고령화 사회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구인·구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망 자격증 중 하나로 86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그 중 53명이 취업했다.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5~54세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1인당 연 20만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카드도 제공한다.

앞서 구례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전 준비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군민참여단 22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했다.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교육, 여성정책 제안 및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8명의 아이돌보미가 30세대 49명에게 서비스 실시 중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가족기능 유지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6가구 200명에게 생활지원금,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의식함양과 여성의 권익증진,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백운산서 산삼 8뿌리 나왔다

70년 근 7000만원 상당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일원 따리봉에서 천종산삼〈사진〉 8뿌리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광양시와 약초협회에 등에 따르면 약초 채취를 생업으로 활동하는 김장원(57)씨가 지난 9일 백운산 자락인 따리봉 산행을 나섰다가 백운산 해발 900m 지점의 골짜기 음지쪽 습기가 많은 곳에서 천종산삼을 발견했다. 발견된 천종산삼은 반경 5m 내에 분포했으며, 모두 8뿌리를 채취했다.

천종산삼은 자연적으로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삼을 말한다.

이 천종산삼은 전문약초인들도 처음보는 대물이라며 광양지역 약초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광양약초협회 관계자는 "천종산삼 8뿌리가 70년 근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대를 이은 가족군의 천종산삼으로 약통(몸통)과 미(뿌리)의 색상이나 형태 등이 천종산삼으로 평생 한 번도 보지못한 대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뇌두(노두)의 발달이 오밀조밀 촘촘하게 진행되어 왔다. 오랜 기간 잠을 잔 흔적도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초협회 김수철씨는 "감정 결과 동자삼의 형태를 보이는 매우 특이한 대물 천종산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뇌두는 오랜 기간 잠을 잔 흔적도 뚜렷이 나타나 있다. 8뿌리의 감정 가격은 700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봤다. 8뿌리 중에서 가장 큰 뿌리는 60g 두냥 정도의 무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순천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선정…국비 3억씩 확보

보성 녹차 통합 정보 '한눈에'

데이터 수입·가공…관광·축제 등 활용 가능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 문화 확산을 위한 보성 녹차 DB 구축 및 개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군은 여러 부서 및 기관에 산재한 녹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류별 녹차 데이터 7700건, 오픈 API 10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5월 중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수집·결합·가공·표준화·시각화·개방 과정이 진행된다. 12월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최종 결과물을 등록해 모든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녹차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녹차 DB를 완성하게 되면, 앱 개발,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나아가 관광, 축제, 체험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차 문화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DB 구축 과정에서 청년인턴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스타트업 정보 '한 손에'

창업 현황·구인구직 정보 등 데이터 구축

순천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생태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 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현황, 복합 공간 및 구인구직 정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집 데이터는 ▲순천시 사업체 ▲순천시 분류별 사업체 현황 ▲순천시 창업 복합 공간 ▲순천시 구인구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다.

시는 주로 광역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해 수요자 중심의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제공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데이터 공급기업과 협약을 통한 매칭으로 공공데이터 구축에 나서 올해 말까지 창업생태계 DB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예정자들은 순천시의 사업체 현황 등 창업 기초 데이터에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